

지역 문화 보호를 위한 에코뮤지엄 사례 분석 연구

Case Study of Ecological Museums for Protecting Local Culture

류 서, 장주영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Shu Liu(100542600@qq.com), Ju-young Chang(jychang@gdsu.dongseo.ac.kr)

요약

에코뮤지엄은 특정 지역을 범위로 하는 담장이 없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에코뮤지엄은 자연과 문화 유산의 진실성, 완전성, 원생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전시하고, 사람과 유산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다. 1971년 프랑스인 조지 헨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ere)가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생태”는 자연생태와 인문생태를 포함한다. 이후 캐나다, 영국, 미국, 중국으로 확산되었다[1].

본 연구는 우선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리하고, 기존 문헌을 정리하며 각각 쑤둥하이, 후자오샹, 리비에르의 연구에서 6개의 요소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 프레임으로 여러 나라의 에코뮤지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이론의 프레임은 에코뮤지엄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본 연구자가 진행 하고 자 하는 중국 소수민족 지역의 에코뮤지엄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에코뮤지엄 | 지역문화 | 사례분석 |

Abstract

Eco-museums can be called "living museums" without walls covering specific areas. Eco-museums protect, preserve and display the integrity, completeness and protozoic of nature and cultural heritage, and emphasize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heritage. In 1971, the concept of "ecomuseum" was presented by Frenchman George Henry Rivier. "Environment" includes natural and human life. It then spread to Canada,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1].

The first Ecological Museum and the concept of this study, the existing literature, high and each Su donghai, Hu chaoxiang and Liviere selects, six in the study of factors. Museum was analyzed by the ecology of the frame of analysis of several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frame of this theory will not only be applicable to the research of the ecological museum in the ecological museum, but it will also be able to use this theory frame for the analysis of the ecological museum in China's minority areas in the future.

■ keyword : | Ecological Museums | Local Culture | Case analysis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과 조지 헨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ere)가 1971년 국제박물관협회 제 9회 대회

* 본 연구는 동서대학교 BK21플러스 해양디자인인력양성사업팀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9년 08월 06일
수정일자 : 2019년 09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0월 16일
교신저자 : 류서, e-mail : 100542600@qq.com

가 개최된 기간에 최초로 제시했다. 그들은 각 계에서 보편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생태 문제를 문화유산의 보호와 박물관 건설에 도입하면서, 생태와 생계를 유기적 총체라고 보았다. 이는 동태적인 개념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공업사회 이전의 생활 형태의 보존, 공업 유산의 문화적 모습 및 전 세계 경제 획일화 흐름 아래에서의 민족 문화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민족 문화의 자신감, 창의력과 문화의 “진위성”을 지켜낸다[2].

본 연구는 이러한 에코뮤지엄의 기존 개념 정리를 통해,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박물관의 건설, 관리, 역할, 발전 상황 그리고 개선조치 등에 관한 분석에 그치며, 에코뮤지엄의 형성 요소에 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문헌으로부터 에코뮤지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 6개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외의 대표적인 에코뮤지엄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에코뮤지엄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소수민족 지역 에코뮤지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선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에코뮤지엄과 전통박물관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리비에르의 연구 ‘에코 뮤지엄, 진화하고 있는 정의’[3]와 중국 학자 쑤둥하이(苏东海)가 발표한 논문 ‘중국 에코뮤지엄’[4]과 후자오상(胡朝相)의 논문 ‘에코뮤지엄의 지역 사회 문화유산 보호’[5] 등에서 개방성, 활성화 정도, 전체성, 자발성, 다양성과 공영성 등 에코뮤지엄이 갖춘 여섯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그 이후의 연구에서 이 여섯 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지역문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5개의 대표적인 해외 에코뮤지엄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에코뮤지엄 개념

1.1 개요

에코뮤지엄, 원래 의미는 생태학적 의미를 지닌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 집단)을 박물관으로 삼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박물관 학계 및 문화계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인 기법으로 관리, 연구 및 개발된 특정한 사회 공동체/사회 집단에서 자연 및 문화유산에 내재된 것을 포함한 모든 유산의 전문적 기구이다. 대중이 참여하는 사회 공동체의 기획과 발전의 도구를 말한다[6].

에코뮤지엄은 지역과 사회 공동체를 넘어 나타났다. 리비에르와 프랑스 자연공원의 박물관 학자의 사상에 따르면, 이러한 신행 박물관은 세 가지 기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학문적 융합, 사회 공동체와의 연결, 사회 공동체 주민이 참여하는 건설 및 운영 등이 그것이다. 또한 모든 에코뮤지엄은 지역성과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3]. 이는 주민 및 교육적 방향과 관련된다. 국제 박물관 협회의 자연 역사 위원회와 프랑스 정부 부처도 에코뮤지엄에 대해 각각 정의를 내렸다. 그 공통점은 모두 에코뮤지엄이 문화기구로서 문화유산 및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더 나아가 에코뮤지엄의 이념이, 유산을 전통박물관과 같은 보호가 아닌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7].

1.2 전통적 박물관과의 차이점

에코박물관은 문화 본거지, 문화의 주인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새로운 박물관학 운동이 전통적 박물관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전통적 박물관이 소장품과 그것이 탄생한 조건 및 환경을 분리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르네 리바드(Rene Rivard)는 에코뮤지엄과 전통적 박물관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한 후, 1988년 아래와 같은 간결한 공식을 도출하였다[8].

표 1. 르네 리바드의 비교 공식

전통 뮤지엄	건축 + 소장품 + 전문가 + 관람객
에코 뮤지엄	지역 + 전통 + 기억 + 주민

또한 전통박물관과의 특징을 비교 정리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표 2. 에코뮤지엄과 전통박물관의 차이

비교내용	전통박물관	에코뮤지엄
활동범주	박물관 건물 내 소장품	박물관 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까지 포함
활동자	박물관 전문연구원	지역사회 주민, 상주 전문 연구원, 관련 분야 학자와 전문가
활동	문물 수집 정리, 과학적 연구, 전시, 사회 교육	지역사회 조사→지역사회 전시→별관, 과학연구, 전시기획, 사회교육
소장품	이동 가능한 문물	지역 문화, 지역 풍속, 지역 환경 등
관리	하향식 관리	완전히 사유화된 연합회 기구가 관리

2. 에코뮤지엄의 역할

전통적 박물관의 “건축+소장품+전문가+관람객” 모델이든, 에코뮤지엄의 “지역+전통+기억+주민” 모델이든, 그 목적은 모두 문화 보존에 있다. 따라서 “보존”은 에코뮤지엄의 핵심 업무로서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소장품 보호이다. 이는 전통적 박물관의 보호 방식이자, 위기에 처한 문화를 제때 구제하고 문화 가치를 제때 발굴한다는 전제이다. 둘째, 활성화 보호이다. 유산 보호와 경제 발전의 모순 사이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원시적 생태 건축물이다.

문화 계승은 보호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으며, 전시는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에코뮤지엄은 보존과 연구의 기초 상에서 주민, 관람객 등 각기 다른 인문적 수요를 근거로 하여 진열 방식을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다.

첫째, 합의 측면에서 정적인 면과 동적인 면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을 채택한다. 정적인 합의는 현재의 환경과 문화를 이용하여 현지 생활의 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예, 풍습 등 목적성이 두드러지는 전문 테마를 전시한다.

둘째, 형식적 측면에서, 실물과 기억의 전시를 서로 결합시킨다. 각 분야의 문물, 향토 건축물, 농기구 등 실물을 전시하는 것은 현재 통용되는 전시 형식으로서, 현지의 물질문화의 면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에코뮤지엄은 지역문화에 입각하여, 임기응변이 가능한 보호 모델과 전시 수단을 기초로 문명의 여정을 수립한다. 문화 발전의 다양성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추진하여 합리적인 이용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때 해당 사회의 영향력을 극도로 끌어올린다.

3.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조사는 '에코뮤지엄과 문화유산보호'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114개의 검색 결과를 얻었다. 그 중에서 인용수가 높은 대표 문헌 8편을 참고했다. 그 중에서 또 가장 영향력이 큰 쉬둥하이¹⁾, 후자오상²⁾, 리비에르³⁾는 모두 에코뮤지엄 이론의 권위있는 학자로 본 연구에서 근거가된 이론의 저자들이다.

표 3. 문헌 정리

저자	제목	주요 관점
펑웨이 (郑威)	『문화유산보호와 발전의 사고-광시 허저우 객가 문화 에코뮤지엄 건설을 논하다』, 2006	에코뮤지엄은 현지성, 진실성과 완전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의 세 요소는 생활의 구역성, 민족문화유산, 그리고 이들과 연결되는 주민을 포함한다.
황춘우 (黄春雨)	『중국 에코뮤지엄의 생존과 발전적 사고』, 2001	중국 에코뮤지엄의 발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요약한 것으로, 에코뮤지엄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발전을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팡이리 (方李莉)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심층적인 사회적 배경』, 2007	연구에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에코뮤지엄이 커뮤니티 문화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비에르	『에코뮤지엄, 진화 중인 정의』, 1986	에코뮤지엄은 시간에 대한 일종의 표현이다. 이곳에 펼쳐진 시간 범위 안에 존재하는 각각각색의 해석은 인류 등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선사시대와 인류의 삶까지 거슬러 올라가다가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역사발전까지 이른다.
중경위 (钟经纬)	『중국 민족지역 에코뮤지엄에 관한 연구』, 2008	소수민족 문화재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에코뮤지엄에 대한 탐판조사를 벌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1차 소재에 더해 중국 소수민족 지역 에코뮤지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생태환경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후자오상	『에코뮤지엄 커뮤니티의 화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빈곤을 퇴치하는 데 있다』, 2001	에코뮤지엄의 사회적 기능은 한편으로 문화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빈곤을 퇴치하는 데 있다.
쉬둥하이	『중국 에코뮤지엄』, 1995 『에코 뮤지엄에 관한 사색』, 1995.	에코뮤지엄은 문화유산 보호 측면에서 정체성, 자발성,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에코뮤지엄은 지역 사회 공동체를 단위로 하며, 담장 없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후자오상	『에코뮤지엄의 지역 사회 문화 유산 보호』, 2001	에코뮤지엄 커뮤니티의 문화유산 보호는 공명성이라는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 1) 쉬둥하이(苏东海), 중국 박물관학 분야에서 박물관 철학 연구와 박물관 발전 연구에 매진하였다. 특히 <노르웨이 박물관> 잡지 시리즈에 “쉬둥하이 논문선”이 게재된 바 있다. 1986년부터 국제 에코뮤지엄 사상을 중국에 알리고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꾸이저우(贵州) 에코뮤지엄 국제 포럼을 주관하고 진행하였다. “중국 에코뮤지엄의 아버지”라 불린다.
- 2) 후자오상(胡朝相), 중국 혁명박물관 연구원, 꾸이저우성 문물 보호고문, 꾸이저우성 문물처 처장.
- 3) Georges Henri Riviere, 에코뮤지엄 이념 제창자, 프랑스 박물관 전문가.

이상에서 언급한 문헌으로부터 기존 연구 중 에코뮤지엄의 핵심 요소를 언급한 일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나, 분석에 참고할 만한 구체적 프레임은 정리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을 토대로 에코뮤지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발굴하고 해외 에코뮤지엄 사례에 응용하여 에코뮤지엄의 구체적인 분석이론의 프레임을 정리하고자 한다.

III. 사례 분석

1. 분석의 틀

표 4. 요소 도출

저자	국가	연도	주제	요소
쑤둥하이	중국	1995	『중국 에코뮤지엄』	전체성
				자발성
				다양성
후자오상	중국	2001	『에코뮤지엄의 지역 사회 문화 유산 보호』	공영성
리비에르	프랑스	1986	『에코뮤지엄, 진화하고 있는 정의』	개방성
				활성화 정도

본 연구는 쑤둥하이(苏东海), 후자오상(胡朝相)과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 연구를 토대로 에코뮤지엄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쑤둥하이는 “중국 에코뮤지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1. 주민은 자기문화의 주인이며, 정부와 전문가는 현지 문화에 대한 일시적 대리인일 뿐이다.
2. 에코뮤지엄은 문화다양성의 산물이며, 대외개방을 통해서만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3. 전통적 박물관 건축의 제한을 타파하여 박물관 서비스가 커뮤니티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이상 세 가지를 본 연구에서는 각각 자발성, 다양성과 전체성이라 정리한다.

후자오상은 2001년 발표한 논문 “에코뮤지엄의 지역 사회 문화 유산 보호”에서 에코뮤지엄 건설이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적 수입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은 연구에서 공영성으로 정리하였다.

1986년 리비에르는 “에코뮤지엄, 진화하고 있는 정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에코뮤지엄이 메모리얼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만들었다.
2. 본 지역 주민의 과거와 현재 및 그 주변 환경을 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본 영역의 전문 인력 육성을 촉진하였으며,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부분에서도 에코뮤지엄은 하나의 실험실이 되었다.

이상 두 가지는 본 연구에서 활성화 정도와 개방성으로 각각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6개 요소를 에코뮤지엄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요소로 정의하였다. 또한 개방성, 활성화 정도, 통합성, 자발성, 다양성, 공영성 등 6개 특성을 근거로 대표적인 에코뮤지엄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5. 에코뮤지엄의 6가지 요소

특성	개념	표현형식
개방성	외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다.	다양한 형식으로 외계와 상호 교류한다.
활성화 정도	지명도와 영향력을 높인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과 문화에 대한 홍보 및 보호를 한다.
전체성	환경의 각 구성 부분과 요소는 하나의 유기체를 구성한다.	에코 뮤지엄의 구성 부분 및 주변 환경의 정비와 유지를 한다.
자발성	주민은 자기문화의 주인이다.	원주민이 자발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건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양성	생물과 그 생존환경의 다양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자연, 환경, 문화, 역사, 건축, 경관 등 현지문화를 보호 하고, 원주민의 생활 습속을 외부로부터 이해시키다.
공영성	경제와 문화가 함께 발전한다.	문화 보호와 경제 발전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현지 사회, 경제,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2. 사례 분석

2.1 사례 선정

아래는 해외의 대표적인 에코뮤지엄을 5개 선정하여 6가지 요소에 의거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랑스의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알자스 에코뮤지엄, 캐나다의 상비보스 에코뮤지엄, 미국의 안나코스티야 커뮤니티 박물관, 영국의 스코틀랜드 스태핀 박물관 등 5개의 에코뮤지엄을 선정하였는데, 이들 박물관은 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건설된 에코뮤지엄이며 오늘날에도 운영되고 있

다. 이들은 경제 낙후지역의 에코뮤지엄 사례로,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동시에 현지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문헌에서 가장 많이 소개한 곳이기도 하다.

크뢰조몽소 사람과 산업박물관은 세계 최초로 사람을 박물관 핵심에 둔 에코뮤지엄이며, 프랑스 에코뮤지엄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9]. 알자스 에코뮤지엄은 1980년 중반 유럽 경제 쇠퇴 이후의 '제3대 박물관'의 대표이다[10]. 상비보스 에코뮤지엄은 에코뮤지엄 이념이 캐나다에 전해진 후 건립된 최초의 에코뮤지엄으로, 건설 이후 "에코뮤지엄과 신 박물관학"을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퀘벡 선언>이 채택되었다[11]. 이는 에코뮤지엄에 관한 최초의 국제 심포지엄이며, 에코뮤지엄과 신박물관 운동의 정착을 꾀취한 회의로, 에코뮤지엄 이념의 전파와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0]. 안나코스티야 커뮤니티 박물관은 에코뮤지엄 이념 이전에 에코뮤지엄이라 명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미 에코뮤지엄의 성격을 지닌 커뮤니티 박물관이기 때문에 에코뮤지엄의 발전 연구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미쳤다[12]. 스코틀랜드 스테핀 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완전 개방형 박물관이다. 박물관 설립 이래 해마다 1.5만 명의 여행객이 스테핀 지역을 찾아 현지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박물관은 끊임없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에코뮤지엄의 특징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13].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 5개 박물관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6. 사례 에코뮤지엄

1	프랑스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2	프랑스	알자스 에코뮤지엄
3	캐나다	상비보스 에코뮤지엄
4	미국	안나코스티야 커뮤니티 박물관
5	영국	스코틀랜드 스테핀 박물관

2.2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크뢰조몽소 사람과 산업박물관(The museum of Man and Industry, Le Creusot-Montceau)은 '에코뮤지엄'이라는 명칭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최초의 '에코뮤지엄'이라 불린다. 당시 국제 박물관 협의회 바린(Hugues de Varine) 회장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1975년 완공되었다. 크뢰조의 18세기 고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찍이 황실 유리공장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이곳은 현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박물관으로, '1+5' 모델을 채택하였다[4].

표 7.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상황

사업	사진	설립	장소	특징	활동자
내용		1975년	프랑스 세드쿠스	박물관 1+5모델	크뢰조몽소 주민
소장품			역할		
지역에 존재하는 5개의 별관을 말하며 운하관, 탄광관, 광업학교관, 수도원, 노동자주택지구를 포함한다.				지역 산업의 부흥, 문화발전, 수공예 인력 육성, 성인교육을 위해 힘쓰며 마을 발전을 촉진한다.	

표 8.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분석

특성	분석
개방성	고대 건축의 전면적인 보수와 보호에 관하여 원주민들은 외부 인사와 교류할 용의가 있음.
활성화 정도	탄광, 운하 등 문화 전승을 보호하며 홍보하였음.
전체성	박물관 구역 내에는 광업 학교와 수도원, 주택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주민의 주거 조건이 보장되면서도 기존의 생활습관을 보호할 수 있었음.
자발성	원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박물관의 건설, 경영, 관리에 참여하였음.
다양성	보호 범위는 박물관 건물 자체나 주변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 내 모든 자연경관과 인문자원을 관리 범위에 포함시켰음.
공명성	수공예자의 양성과 성인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

상술한 분석 중 활성화 정도, 전체성, 다양성으로부터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이 역사적 건축과 전통문화 보호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수공예 인력의 육성과 성인 교육에서도 공명성의 특징과 문화발전을 촉진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개방성 측면에서는 원주민과 외부의 교류를 장려할 뿐 그 자체의 대외연계는 결핍되어 있다.

2.3 알자스 에코뮤지엄

프랑스 동부 뮈제인의 알자스 에코 뮤지엄(d'Alsace Ecomuseum) 역시 프랑스 에코뮤지엄 중 대표적인 곳

4) '1+5' 모델. 여기에서 '1'은 크뢰조몽소 사람과 산업박물관의 중심관을 말하며, 크뢰조의 18세기 고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찍이 황실 유리공장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5'는 주변 지역에 존재하는 5개의 별관을 말하며 운하관, 탄광관, 광업학교관, 수도원, 노동자주택지구를 포함한다.

이다.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그들은 선택적으로 재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워거슈임 시에서 제공하는 25에이커의 광산지역에 기존의 농가를 중심으로 재건을 진행했다. 알자스 에코뮤지엄은 프랑스 최대 규모의 노천박물관으로, 농촌유산을 삶 속에 끌어들여 여행객에게 알자스 민간예술과 전통을 보여준다[14].

표 9. 알자스 에코뮤지엄 상황


사업	사진	설립	장소	특징	활동자
내용		1984년	프랑스 워거슈임시	15-19세기 말 당시 농촌이나 산업 건축물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	알자스 농민의 집 협회
소장품			역할		
건축의 인테리어, 기능, 사용방식이 모두 재현되었으며, 심지어 현재의 동식물까지도 옮겨 전시함으로써 '원래 그대로'의 농촌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인공'적인 농촌이지만 문화유산 보호, 생태 복원, 지역경제 발전 면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표 10. 알자스 에코뮤지엄 분석

특성	분석
개방성	전통농업을 복구하고 대량의 동식물을 양식하여 원래의 생태 사슴을 회복하였음.
활성화 정도	'회고'식으로 지역 주민의 구술사를 취입하며 웹사이트를 만들어 박물관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였음.
전체성	그 대표성과 풍토, 시대 또는 사회 집단 관계에 기반을 둔 알자스 가정, 농경, 학교, 교회 기지역, 산판을 선택하여 재건하였음.
자발성	지역 주민들이 박물관의 관리에 참여하며, 직원이 현지 전통의상을 입고 관객에 현지의 전통공예, 농사, 철기제작 등을 전시하였음.
다양성	전통 명절에는 다양한 일상 오락 행사를 열어 트랙터를 타거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관광하며 쇼핑할 수 있음.
공영성	관광객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지 교육청과 협력하여 견학 장소를 제공하였음.

알자스 에코뮤지엄은 원래 있던 자리에 재건하는 형식으로 건립되어, 현지 생태계 및 그 전통적 농장문화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개방성과 전체성을 구현해 낼 수 있었으며, 활성화 정도 면에서도 다양한 홍보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자발성, 다양성, 공영성 면에서 대부분 원주민의 대외교류를 통해 외부사회가 그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2.4 상비보스 에코뮤지엄

70년대 후반 캐나다 학자들이 프랑스와 학술교류를 진행하며 에코뮤지엄 이론을 퀘벡 지역에 들여왔다. 이

학자들은 본국에서의 시도와 발전을 통해 기존 에코뮤지엄 이론을 확장하고 관련 조직 및 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언어적 편리성 덕분에 프랑스에서 발전한 에코뮤지엄의 성과는 캐나다로 빠르게 전달되었다. 다년간의 이론 축적과 건설 분야의 노력을 거쳐 캐나다 최초의 에코뮤지엄인 상비보스 에코뮤지엄(The Ecomusée de la Haute-Beauce)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1983년 10월 마침내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표 11. 상비보스 에코뮤지엄 상황


사업	사진	설립	장소	특징	활동자
내용		1983년	캐나다 퀘벡시	1대중이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자발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발전의 지표라고 보았다.	상비보스 시민 지역 정부
소장품			역할		
농·림·축·화강업 채굴업의 농작도구 전시와 원시생활상태의 환원 한다.			관광객 개인의 발전을 도와 모든 사람들이 에코뮤지엄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과 발전방식을 발견하도록 하는 데 있다		

표 12. 상비보스 에코뮤지엄 분석

특성	분석
개방성	전소장품 분실로 마을 재건하고 자금을 모아 이곳에서 에코뮤지엄을 건립하였음.
활성화 정도	설명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정보를 현지 주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소장품의 중요성을 나타냈음.
전체성	민중들이 에코뮤지엄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가르치며, 따라서 사회 변혁을 이끌 수 있음.
자발성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에코뮤지엄의 사무에 참여하며,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를 해답함으로써 자연과 문화 유산을 인식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민족 정체성을 추구하였음.
다양성	동시에 농업, 임업, 목축업, 광업에 대해 현지내 보전을 실시하였음.
공영성	박물관 사업에 대한 민중의 참여가 활발해졌고, 이들은 지역 사회와 관련된 사회나 경제활동으로 관심을 넓히고, 이처럼 밀접한 연계를 통해 관련 부처들이 민중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민중의 필요에 맞는 인성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여 지역 배려를 강화하였음.

상비보스 에코뮤지엄은 다양성, 공영성의 두 측면에서 원주민의 교육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그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각 방면에 대한 보호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져 공동 발전을 더 원활하게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방면에서는 평범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하는 방식 면에서 전통박물관과 별 차이가 없다.

2.5 안나코스티아 커뮤니티 박물관

1960년대 프랑스에서 에코뮤지엄 설립이 시작되기 전 미국은 이미 지역사회 박물관인 안나코스티아 커뮤니티 박물관(Anacostia Community Museum)을 설립했다. 1966년 11월, 스미스소니언의 딜리언 리플레이(Dillion Ripley) 총재는 전미 박물관 총회에서 박물관이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고 호소하며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대중이 문화를 접하고 잠재된 능력과 창작을 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67년 9월 안나코스티아 커뮤니티 박물관이 개관하며 경영 관리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표 13. 안나코스티아 커뮤니티 박물관 상황


사업	사진	설립	장소	특징	활동자
내용		1967년	미국 워싱턴시	대중의 전시 참여 뿐 아니라 박물관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느낌을 만들어나간다.	지역사회 청년들
소장품			역할		
지역 사회 역사 문화의 전시, 노동 도구, 주민복장, 생활용품 등 전시하다.			주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존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높였다.		

표 14. 안나코스티아 커뮤니티 박물관 분석

특성	분석
개방성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대중이 문화를 접하게 하고 잠재 능력과 창작의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음.
활성화 정도	박물관은 주민들의 즐거운 배움터이자 실험실임. 주민들은 박물관 운영을 통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자체 노력과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
전체성	동시에 전시 주제, 지역 및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싸고 큐레이션을 전개하였음.
자발성	경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이웃 고문 위원회로, 지역의 각 계층에서 선출된 75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자와 전문가는 주도자가 아닌 협력자로 참여하여 박물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음.
다양성	큐레이션의 내용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주제로 하며, 전시 대상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주로 하였음.
공명성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익성을 통해 주민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존심과 긍정적인 정서를 높였음.

안나코스티아 커뮤니티 박물관은 자발성을 발휘해 지역 내에 이웃 고문위원회를 구현해냈다. 이는 커뮤니티의 건설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다른 에코뮤지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활성화 정도 면에서 에코뮤지엄을 통해 경제가 낙후된 지역도 자신의 노력과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6 스코틀랜드 스태핀 박물관

2008년 건립된 영국 스코틀랜드 스태핀 박물관(Scotland Staffin Museum)은 쥘라기 시대의 역사를 주제로 한 에코뮤지엄이다. 그는 경치가 아름다운 스코틀랜드 관광지인 스카이스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한때 게일 사람들이 대대로 살았던 곳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들만의 민족 문화와 소양을 형성하였다. 오늘날 비록 영어가 섬 전체를 뒤덮고 있지만, 게일 어는 여전히 섬 주민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박물관은 'Ceumanann'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게일어로 '발자국'이라는 뜻이다[15].

표 15. 스코틀랜드 스태핀 박물관 상황

사업	사진	설립	장소	특징	활동자
내용		2008년	영국 헤브리디 제도	담장과 지붕이 없어 숙박감을 주지 않은 완전히 오픈된 박물관이다.	스태핀 지역 신탁(SCT): 현지 주민들이 경제개선을 위해 만든 공공조직.
소장품			역할		
지역 공예품, 쥘라기 시대의 화석 전시하다.			주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적 활용을 통한 직원들의 경제 비전 강화, 현지 주민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한다.		

표 16. 스코틀랜드 스태핀 박물관 분석

특성	분석
개방성	담장과 지붕이 없는 오픈형 박물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됨.
활성화 정도	광범위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여행객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동시에 길가에 있는 여관과 음식점 등에 경제적 이익과 취업 기회를 창출하였음.
전체성	게일인들의 민족 문화, 생활습관, 그리고 쥘라기 시기 문화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호하였음.
자발성	현지 주민이면 상인이든 어민이든 모두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 발전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다양성	이미 발굴된 공룡 화석과 부분 발굴 도구를 전시하고, 공룡 테마를 둘러싸고 많은 어린이 취미와 도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음.
공명성	게일어 학습 수업을 개설하여, 현지 주민들이 게일어로 학생들과 교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주민들은 고향 문화를 홍보하는 동시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였음.

스코프레이랜드 스태핀 박물관은 5개 사례 중 가장 늦게 건립되었으며, 최초의 완전 개방형 에코뮤지엄이기도 하다[16]. 활성화 정도 면에서 풍부한 홍보수단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해주었다. 지역의 민족문화와 쥘라기 역사문화에 대한 보호도 박물관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힘이 되었다. 게일어 수업을 개설하여

현지 주민이 게일어로 학생과 교류하는 방식을 장려하였는데, 이 역시 공영성이라는 요소를 잘 구현했다. 시골의 문화를 홍보하면서 동시에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IV. 분석 결과

표 17. 5개 에코뮤지엄 사례 분석결과

공통점	차이점
원주민에 의한 건설 혹은 운영에 참여	환경으로 인한 건축형식의 차이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산물 보호	전시내용의 차이
경제적으로 낙후 지역에 건설	관리 메커니즘의 차이
풍부한 민속역사 보유 지역	전시방식의 차이

표 18. 사례 요소 분석

	개방성	활성화 정도	전체성	자발성	다양성	공영성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	●	●	◐	●	◐
알자스 에코뮤지엄	●	●	●	◐	○	◐
상비보스 에코뮤지엄	◐	○	◐	◐	●	●
안나코스티아 커뮤니티 박물관	◐	●	◐	●	○	◐
스코틀랜드 스테핀 박물관	●	●	◐	◐	●	●

(●뛰어나다 ◐일반적 ○부족하다)

이상의 5개 에코뮤지엄 사례분석에서 개방성과 자발성은 주로 박물관의 건설방면에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자발적으로 역사적 건축을 보호하는 등의 모습이다. 다양성과 전체성은 소장품, 환경, 문화, 동물보호에 더 많이 표현된다. 공영성은 대부분 지역건설과 함께 경제문화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표현되며, 활성화 정도는 외부와의 교류연계에 잘 나타난다.

사례를 통해 모든 에코뮤지엄마다 각자 특징적인 장점이 있으며, 동시에 어떤 면은 평범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본 연구가 제시한 6개의 핵심요소는 그 조합성과 실시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에코뮤지엄 분석의 프레임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 에코뮤지엄 분석의 프레임을 통해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지역 환경의 5개 에코뮤지엄은 모든 핵심요소를 대체로 골고루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에코뮤지엄 개념이 등장한 이래 많은 국가와 지역이 이 개념을 실천에 옮겼고 에코뮤지엄을 설립하였다. 에코뮤지엄은 유산 속에 숨어 있는 문화적 맥락과 환경을 강조하여, 여행객이 마치 실제 현장에 온 것처럼 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에코뮤지엄에서 원주민은 박물관의 직원이 되어 자신의 평소 생활을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현재 전통문화가 외래문화와 생활방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지 주민, 특히 젊은 층은 기존의 문화유산을 버리고 더 높은 경제적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본토 주민이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구역은 지나친 산업화의 폐단이나 기존 원시 생태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에코뮤지엄은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민속 문화가 풍부한 지역에서 구현되고 있다.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도시화 발전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에코뮤지엄의 발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며, 현대화된 도시와의 결합이나 도시 속 에코뮤지엄 발전은 미래 에코뮤지엄 발전이 직면한 문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코뮤지엄의 요소로 개방성, 활성화 정도, 전체성, 자발성, 다양성과 공영성이라는 6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6개 요소는 에코뮤지엄의 분석 프레임으로 향후 에코뮤지엄 분석의 참고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첸둥난(黔东南) 소수민족지역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양쿤(杨昆), “무형문화유산 보호 중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에 대한 총론,” CHINA COLLECTIVE ECONOMY,

제33권, 제92호, p.38, 2009.

- [2] Hugues De varine, “20세기 60-70년대 신박물관운동사상과 에코뮤지엄 용어 및 개념의 기원,” 중국박물관, 제260권, 제14호, p.72, 2005.
- [3] Georges Henri Riviere, “에코뮤지엄, 진화하고 있는 정의,” 중국박물관, 제4권, 제2호, p.75, 1986.
- [4] 쉬둥하이(苏东海), “중국 에코뮤지엄,” 베이징 관찰, 제7권, 제11호, p.55, 1995.
- [5] 후자오상(胡朝相), “에코뮤지엄의 지역 사회 문화 유산 보호,” 중국박물관, 제269권, 제26호, pp.19-22, 2001.
- [6] 판쇼우용(潘守永), “에코뮤지엄 및 중국에서의 발전: 역사적 관찰과 사고,” 중국박물관, 제268권, 제9호, p.24, 2011.
- [7] 쉬둥하이(苏东海), “국제에코뮤지엄 운동 슬락 및 중국의 실천,” 중국 박물관, 제260권, 제7호, p.4, 2001.
- [8] 쉬둥하이(苏东海), “에코뮤지엄에 관한 사고,” 중국박물관, 제268권, 제11호, p.3, 1995.
- [9] 쑤화(孙华), “에코뮤지엄 건설 지침 초안,” 유산과 보호 연구, 제269권, 제2호, p.4, 2016.
- [10] 위푸예(于富业), “에코뮤지엄에 관한 기초 연구-꾸이저우(贵州) 에코뮤지엄군과 저장안지(浙江安吉) 에코뮤지엄군을 사례로,” 난징예술학원(南京艺术学院), 제2권, 제28호, pp.23-26, 2014.
- [11] 위밍팡(于鸣放), “퀘백 선언,” 중국박물관, 제269권, 제1호, p.269, 1995.
- [12] John Kinard, “The Smithsonian’s Anacostia Neighborhood Museum,” Curator, Vol.11, No.3, p.190, 1968.
- [13] 쟡쉐쎌(郑学森), “에코뮤지엄을 향해 나아가다-스코틀랜드 스테핀 박물관의 시사점,” 박물관연구, 제269권, 제561호, p.15, 2019.
- [14] <https://www.ecomusee.alsace/fr/>, 2019.6.12.
- [15] Kenneth Hudson, *Ecomuseums becomes more realistic*, Nordisk Museologi, 1996.
- [16] 배은석,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활용한 지역의 유산보존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5권, 제33호, p.33, 2014.

저자 소개

류 서(Shu Liu)



정회원

- 2009년 9월 : 베이징공상대학교 디자인학과(문학사)
- 2014년 3월 : 동서대학교 디자인학과(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동서대학교 디자인학과(박사)

〈관심분야〉 :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 에코뮤지엄

장 주 영(Ju-young Chang)



정회원

- 현재 : 동서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디자인역사, 비교문화(동아시아 및 한국지역 디자인문화), 디자인이론